

靑 “文대통령 21일 정당 대표 대화 제안··통합당 불참 통보”

“여야 정당 대표 대화 제안 언제든 열려 있어”



최재성 정무수석이 17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 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여야 대표회동 제의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 여야 정당 대표 초청 대화를 제안했지만 미래통합당이 이를 거절했다. 청와대가 18일 밝혔다. 최재성 정무수석 비서관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난 13일 제가 신임 정무수석으로서 김중민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을 예

방하는 자리에서 재차 대통령의 당대표 초청 대화 의사를 밝혔다”면서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어제(17일), 오는 21일로 제안했던 일정이 불가함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여야 정당 대표 대화 제안은 언제든 열려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수해 피해, 경제 위기 등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정치권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주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분기별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개최 합의에 따라 전임자였던 강기전 전 수석 재직 당시 오는 8월 중으로 문 대통령과 여야 정당 대표 초청 대화를 타진했고, 최 수석 체제 이후 재차 제안했지만 통합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018년도에 여야정 상설협의체(구성) 합의하고 오랫동안 진행이 안 됐다”면서 “문 대통령은 올해 2월과 5월 정당 대표와 원내 대표를 만나서 각각 대화한 바 있다. 3개월에 한 번씩 한다는 합의에 따라서 8월에 할 것을 제안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합석 불가를 밝힌 김중민 비대위원장의 이유는 무엇이었던가”라는 질문에 “특별한 이유를 전달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靑-여야 대표 회동 무산 통합당 “공식 제안 없어...무례”

통합 “대화마저 강매...우리가 거부한 것처럼 떠넘겨”

미래통합당은 17일 청와대가 통합당 측의 거절로 여야 정당 대표 회동이 무산됐다는 브리핑에 대해 “청와대는 회담을 공식 제안한 적이 없다”며 즉각 반박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구두 논평을 내고 “빈말로 지나가듯 언저리에 던져놓고 마치 저희가 거부해서 성사가 안 된 것처럼 떠넘기고 있다. 무례하다”며 이같이

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데에 익숙해지시더니 대화마저 강매하고 있다”며 “21대 국회 들어서서 법사위원장 강탈, 의회 독식 등 청와대가 하고 싶은 대로 다하다니 이제 와서 돌변해 회담하자” 팔을 비튼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광복절날 광화문 집회에 입장기...기막힌 현실”

장준하 45주기 추도식 참석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이낙연 의원은 17일 고(故) 장준하 선생 45주기를 맞아 ‘장준하 선생 기념관’ 설립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날 경기 과천시 장준하 공원에서 열린 추도식 추도사를 통해 “올해 8월 우리는 기막힌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고 운을 폈다. 그러면서 2013년 헌법재판소의 ‘긴급조치 1호’ 위헌 결정에

따른 유족 배상 판결에 정부가 항소한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 항소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법원의 판단을 수용할 것을 법무공단에 요구한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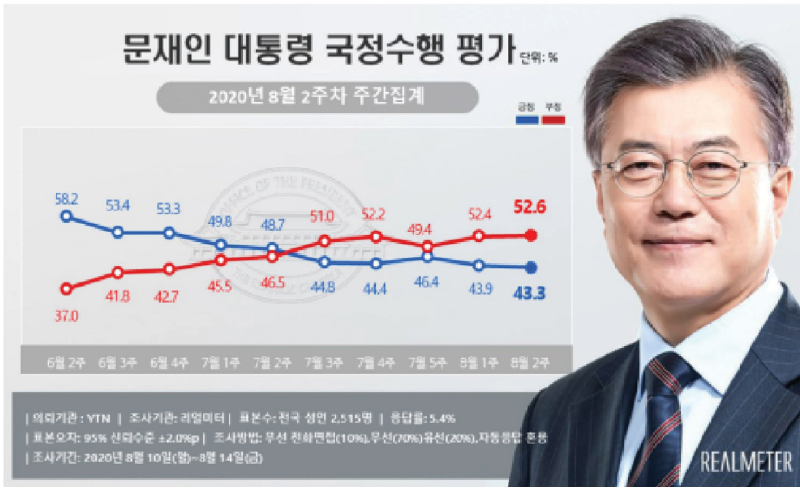
또 후대에 장준하 선생의 삶을 기억하기 위한 기념관 건립을 제안했다. 그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선생님께서 ‘사상계’를 발행하셨던 종로2가 파이롯트 빌딩에 기념관을 건립하려는 생각을 생전에 밝히신 적이 있다”며 “서



이낙연은 17일 경기 과천시 장준하 공원에서 열린 추도식 추도사를 통해 “올해 8월 우리는 기막힌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고 운을 폈다. 그러면서 2013년 헌법재판소의 ‘긴급조치 1호’ 위헌 결정에 따른 유족 배상 판결에 정부가 항소한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 항소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법원의 판단을 수용할 것을 법무공단에 요구한다”고 했다.

긍정 43.3% 부정 52.6% 文 지지율, 2주 연속 ‘데드 크로스’

코로나19 확진 급증 영향 해석...긍정 이슈 상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2주 연속 소폭의 하락세를 이어갔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데드 크로스’ 현상도 오차범위 밖에서 2주 연속 계속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0~14일 닷새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7일 발표한 8월 2주차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p·응답률 5.4%)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3.3%가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부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52.6%(매우 잘못 39.6%·잘못하는 편 13%)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0.5%포인트 상승한 4.1%로 조사됐다.

긍정 평가는 지난 주 같은 조사 대비 0.6%포인트 하락해 2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7월 5주차 주간집계(긍정 46.4%)를 시작으로 8월 1주차(긍정 43.9%)에서 2.5%포인트 하락한 데 이어 0.6%포인트 또 떨어졌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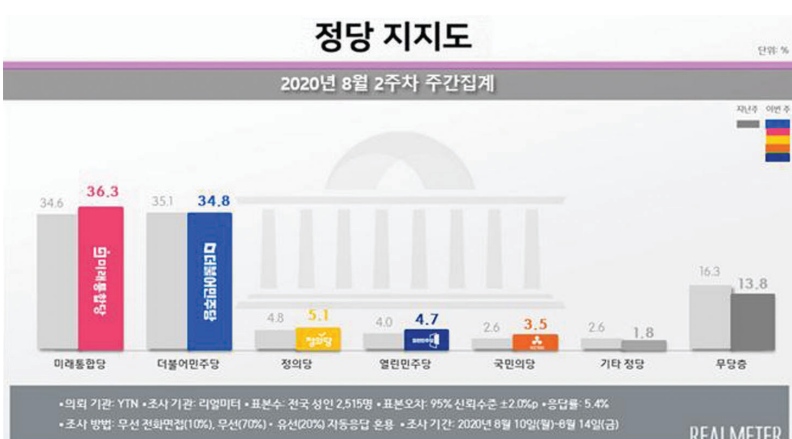
반면 부정 평가는 2주 연속 상승해 긍·부정 간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9.3%포인트로 벌어졌다. 8월 1주차 때 오차범위 밖으로 격차가 벌어진 흐름이 2주 연속 계속됐다.

지난 주말을 전후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폭증한 악재가 대통령의 지지율에 직접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제성장률 전망과, 5명의 청와대 수석 비서관 교체 등 긍정적 이슈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4.1%p ↓·긍정 43.5%→39.4%)이 크게 떨어지며 전반적인 하락세를 이끌었다. 반면 대구·경북(8.7%p ↑·긍정 29.7%→38.4%)에서는 큰 폭으로 긍정 평가비율이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7.6%p ↓·긍정 48.3%→40.7%)와 20대(4.4%p ↓·긍정 40.3%→35.9%)에서 하락세가 도드라졌다. 반면 30대(6%p ↑·긍정 47.3%→53.3%)와 40대(3%p ↑·긍정 52.3%→55.3%)에서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34.8% · 통합당 36.3%...지지도 역전 추세 계속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지속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한 8월2주차(10일~14일) 주간 집계 결과 민주당 지지도는 1주차 주간 집계 대비 0.3%포인트 하락한 34.8%를 기록했다. 미래통합당 지지도는 1.7%포인트 상승한 36.3%였다.

앞서 리얼미터가 지난 13일 TBS 의뢰로 실시한 8월2주차(10일~12일) 주중 잠정 집계에서는

통합당 36.5%, 민주당 33.4%의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이번 주간 집계 결과 두 당의 지지도 격차는 1.5%포인트로 보수 계열 정당(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이 2016년 10월 3주차 조사(새누리당 29.6%, 민주당 29.2%) 이후 3년 10개월 만에 민주당 지지도를 오차범위 내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통적인 진보 정당 텃밭인 광주·전라(7.7%p ↓, 59.3%→51.6%)에서도 하락세를 보였다. 서울에서도

4.1%포인트가 하락한 31.2%였다.

연령대별로 70대 이상(6.6%p ↓, 27.7%→21.1%), 50대(4.1%p ↓, 39.8%→35.7%)에서는 지지도가 하락한 반면 40대(4.8%p ↑, 41.6%→46.4%)와 30대(3.9%p ↑, 39.6%→43.5%)에서는 상승세였다.

통합당 지지도는 권역별로 서울(4.2%p ↑, 35.7%→39.9%)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

기타 정당 지지도는 정의당 5.1%(0.3%p ↑), 열린민주당 4.7%(0.7%p ↑), 국민의당 3.5%(0.9%p ↑) 순으로 높았다. 무당층은 전주 대비 2.5%포인트 빠진 13.8%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4만6718명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2515명이 응답을 완료해 5.4%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뉴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대표전화 ☎ 062) 229-6000
기사제보 222-2580
광고 직통 228-2580
팩 스 222-5547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